

대한양계협회소식



축산국장 방문

한미FTA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한미FTA가 타결된 다음날인 지난 3일 본회 최준구 회장,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피해 최소화방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시설이 낙후된 정착촌 지역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있어 폐업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적 활동 전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공동위원장



이언종·김근호)는 지난 11일 본회에서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 김연수 한국토종닭협회장, 이언종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 무등록종계장척결위원장, 함경섭 본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되었다.

종계부화업계의 발전전략을 강구키로 하고 미검정 종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방안 마련하고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운영하고자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계·부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갈수록 그 위험수위가 높아져가는 무등록 종계·부화장을 계도 또는 고발조치하여 조기에 색출·척결하고, 최근 시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토종닭·백세미의 생산을 막아 소비자에게 우리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국내 양계산업의 국가경

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센터를 출범하였다.

FTA 긴급 대책회의 개최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본회에서는 지난 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폐업농가에 대한 생계지원과 농가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대화 시설 지원, 단체급식에 국내 양계산물 사용 의무화, 원산지 표시제 철저이행,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질병예방 대책 강화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한희 이사는 미국 닭고기 뿐 아니라 계란도 시기별로 가격변동차가 심하여 시기에 따라 충분히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계산산업에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전하여 계란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안일해서는 안됨을 지적했다.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전국양계인대회 10월에 개최 계획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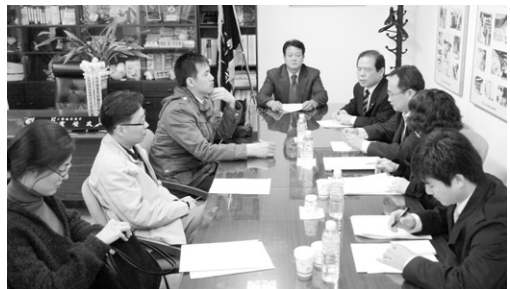
본회에서는 지난 30일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



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과 △정관 개정 추진여부 검토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협회조직 진단 △전국 닭질병방역순회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논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의사항에서 전국양계인대회 개최건에 대해 장소에 대한 협의를 거쳐 10월에 개최하며, 전국 닭질병방역세미나는 5월초에 3개 지역에 걸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자간담회 개최 한미 FTA 등 현안 논의



본회에서는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주재하에 지난 5일 양계 전문 기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될 수 있도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처 상황 △한미 FTA 관련 협회 입장 △자조금사업 현황과 추진방안 △불법종계·부화장 신고센터 운영

등 주요사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한편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양계산업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기자들이 바라는 협회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계우회연합회 2007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일 본회의회의실에서는 2007전국계우회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도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와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결과보고와 함께 영향분석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채란업계에서는 특히 가공란의 저가공급으로 미국산 가공란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졌다.

채란분과위원회 난가 현실화 방안 논의

지난 5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3월 종계입식수수는 68,000수, 2007년도 1/4분기 종계입식수수



132,900수로 전년동기간 대비 105%증가됨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산란계임의자조금사업 보고와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산란계 사육수수는 56,525천수로 전년동기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을 위해 각 지회 및 지부를 통한 '산란실용계 100주령제'를 적극 홍보와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난가 현실화 노력을 해왔으나 근본적으로 생산과잉에 따른 D/C발생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 큰 폭으로 벌어진 D/C폭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활용 방안 논의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

회(위원장 이언종)가 개최되었다. 2007년 3월 육용종계입식수수는 648,200수로 전월대비 11.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당일 진행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현판식과 함께 현재까지 평택, 유성, 논산 소재 모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생산한 씨알(종란) 생산 및 부화업에 대한 현지조사 출장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부화업은 등록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양계산물 공급체계의 구축과 그 동안 종계부화업계에서 백세미 생산관리를 종계에 준한 관리를 체계화 하기위해 등록제 중미비한 조항을 보완·추가시키고자 정부에 요청건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지난 18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3월 육용종계입식수수는 648,200수로 전년 동월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난 12~13일에 걸쳐 진행된 정책소위원회에서 발표된 △고품질 닭고기 생산 및 소비홍보방안 △고병원성 시대책, △육계의무자조금 정책방안 △병아리 품질관련 대책 △한미FTA 체결이

후 육계산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소비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소비홍보시식은 현 실정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닭에 대해 기능성을 중점으로 홍보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미FTA 체결됨에 따라 질병퇴치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우량 초생추 공급과 사료원가 인하 등 생산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정책소위원회
대책방안 농가 위주로**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전북 남원에서 정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면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한미FTA 체결이후 육계산업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번 한미FTA 체결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효화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아래 이면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대책마련에 있어 계열사 위주가 아닌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최저사육비 보상요청 △시설자금 지원요청, △생산비 절감방안 △닭고기 수출방안 모색 및

지원 △친환경 직불제 지원 △폐업보상금 지원, △단체급식 국내산 사용 법적의무화 △음식물 원산지표시 확대 △질병 및 방역보상 지원체계 강화 △가격 손실분 보전 △닭고기 제품개발 지원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지부소식)

광주전남도지회
2007 정기총회 개최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윤한성)는 지난 3월 16일 나주축협 영산포지점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도 사업실적 예산집행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일부 정관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지난 한해 지회 육성발전에 공헌한 환남계란 박환수 대표, 백운농장 강희채 대표, 가봉농장 민종식 대표가 공로패를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한성 지회장은 육계·산란계가 공동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회원간의 구상을 통해 행정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양계산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부산경남도지회
2007 정기총회 개최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황수연)는 지난 3월 28일 김해 목화예식장 뷔페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사업실적 예산집행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일부 정관개정(안)을 심의,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기존 임원구성을 재정·홍보·정책개발 3개 분야로 역할을 특화시켜 도지회를 운영에 변화를 시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지회로서 거듭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2006년 양계업계 및 도지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양계인에 대한 시상에서 최을림, 박관흠, 천예관, 권영준 사장이 각각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이날 황수연 도지회장은 “양계산업과 도지회 발전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육계지부
김주민 신임 지부장 선출

양평육계지부는 지난 총회에서 김주민 신임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김 지부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을 권익보호에 앞장서 지역 발전을 위

해 보다 성실히 노력할 것을 밝혔다.

당진육계지부 현판식 및 지부장 이취임식 거행



당진육계지부(지부장 이홍재)는 지난 27일 지부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지부현판식 및 지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판식은 본회 이종길 전무를 비롯해 박태원 충남육계지부 연합회장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당진군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해 지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지부장 이취임식에서는 회원 및 관련인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되었는데 최치재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류봉수(당진군청), 김정원(농업기술센터), 송경석(미래주유소) 씨에게 각각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홍재 지부장은 “그동안 지부를 이끌어온 최치재 전 지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년 겨울에도 인근지역의 시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진지역은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그동안 애써온 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지부장 이취임식 행사에는 김낙성 국회의원,



김홍장, 이종현 도의원, 김기원 당진축협 조합장, 각 지역 육계지부장 등 100여명의 임원 및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회장등정



◀ 최준구 회장

- 4/3 한미FTA 협상내용 설명회
- 4/5 4월 채란분과위원회
- 4/6 4월 편집위원회
- 4/6 한미FTA 협상결과 관련 대책회의
- 4/11 불법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현판식
- 4/11 4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4/11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27주년
- 4/16 한미 FTA 타결, 축산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
- 4/18 4월 육계분과위원회
- 4/20 축산신문 축산인등반대회
- 4/26 2007년도 육계자조금 임시 대의원총회